

올 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우리 정부의 50만 톤 식량 지원과 20만 톤 비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외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도 좋은 상황이다. 작년 여름 수해 피해가 컸던 것도 식량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만성화된 식량 부족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올 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두면 수 백 만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참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은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긴급 구호가 시급하다.

지난 7월 북한의 수해 피해는 우리 상황보다 훨씬 심각했다. 당시 북한당국이 사망·실종자를 2백 명 내외로, 국내 일부 대북 민간지원단체에서 3천여 명으로 발표하는 등 혼선이 있었지만 상당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농경지의 유실과 침수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대부분의 마을과 농경지가 수해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집중 호우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북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 가슴을 쓰러내려야 하는 현실을 타파하지 않으면, 식량난 해결의 단초는 찾기 어렵다.



**불자 세상보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의 보릿고개 어쩌나

구조적으로 식량부족국가인 북한 자체의 생산수단으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년 2백만 톤 내외의 식량이 부족하다. 북한의 1년 전체 필요 식량은 6백 50만 톤 내외며, 평년작 기준으로 실제 생산량은 4백 50만 톤 내외다. 그동안 북한은 부족분 중 매년 1백만 톤 정도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 오면서 근근이 버텨 왔다. 그러나 작년 외부의 지원 단절과 수해 피해로 북한이 확보한 식량은 4백 50만 톤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심각한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된 식량난에

가중되는 것이기에 더더욱 문제가 크다. 이 시점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가 시급하다. 최근 10여 년 동안 북한은 봄철마다 과거 우리가 경험한 보릿고개를 반복하고 있다. 계절적으로 식량이 가장 부족한 시기가 이 때이기 때문이다. 긴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한 수해피해 지원물자와 대북 식량지원 재개다. 정부는 당시 쌀 차관과 비료 추가지원을 전면 유보하면서, 그 시한을 재개 가능한 "출구가 보일 때까지"로 정한 바 있다. 핵실험으로 여건은 더 나빠졌지만, 최근 6

자회담 재개로 최악의 한반도 위기상황은 점차 벗어나고 있다.

핵실험으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식량지원은 유용한 소재다. 쌀과 비료 지원 유보조치는 유엔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한 조치였기에 식량지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당장 유보된 장마복구 지원사업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연이어 쌀 50만 톤 지원과 비료 지원을 매개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당국 간 관계가 복원된다면, 남북관계 진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도 2차 핵실험 강행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6자회담에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여론은 아직까지 냉랭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해서 뻔한 예견되는 올봄 '2차 식량난'을 뺏겨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1990년대 후반 식량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 백 만의 아가는 목숨을 잃은 민족적 참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교도가 양상서 인도적 식량지원의 물꼬를 터야 우리 정부도 나설 것이다. 우리 곁에 있는 북녘 동포들의 올 봄 배고픔에 눈길을 거둔다면,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행하지 않는 죄행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불자의 눈

새해 들어 국립공원입장료(이하 입장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 징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어 조계종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조계종은 1월 12일 교구본사주최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사찰의 토지를 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1억1000만평에 이르는 사찰의 경내지 사실상 국립공원에 무상제공됐었으므로 그에 대한 평가와 보상도 요구했다.

조계종의 이 두 가지 요구는 매우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난처한 요구지만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재산권 행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관람료 징수는 1962년 해인사를 시작으로 시행됐으나 입장료 징수는 1970년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사찰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전혀 없었다. 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찰은 입장료와 관람료를 한 매표창구에서 합동징수해 왔다. 그렇게 한 살림을 하는 동안에도 입장료와 관람료를 둘러싼 마찰은 심심찮게 발생했다. 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

## 문화재관람료 문제

### '답'은 정부가 내놓아야

이 입장료 인상을 위해 분리징수를 주장하면 사찰은 산문 폐쇄 등의 강경 대응으로 마찰을 정리하곤 했다.

사찰은 수행과 수행을 위한 종교 공간이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민족의 공동 자산이라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종교성과 문화성을 두고 볼 때 사찰의 기능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 수 없다.

관람료와 관련한 문제풀기는 바로 이 사찰의 기능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순기능을 부양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도 그 기능성은 침해될 수 없다. 더구나 사찰이 국립공원 지역에 편입되어 뜻하지 않게 관광지로서의 기능까지 요구받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사찰은 매우 불편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관람료를 둘러싼 조계종과 정부의 시각차가 크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적지 않은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물론 그 '답'은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조계종은 관람료의 징수를 고수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듯하다. 입장료가 폐지된 마당에 관람료의 단독징수는 끊임없는 민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사찰 경내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척할 달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관람료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문화재의 수리 보존과 그를 둘러싼 제반 행정비용 등을 충당하는 법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조계종이 공원지역에서의 경내지 제척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주문에 다를 아니다. 조계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관람료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민심의 질타를 받지 않고도 슬기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들었다

### 화해와 상생

"벗들이 다르면 맞춰 화해 시키고, 허망한 말 전하기를 즐기지 않으면 후생에 친한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며 그 몸이 언제나 사람들의 어른이 되리." <분별선악소기경>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 분열이 첨예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양 진영의 대표 주자들이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지도자들은 "보수·진보세력들이 서로 지나치게 갈등하고 대립해 우리 사회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뒤 화해와 상생을 약속했다.

지도자들은 △다른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며 자주 만나겠다 △스바다 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의견 교환 △갈등 대립을 조정하는 언행 자세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단행위는 용납 않겠다는 4가지 다짐을 했다.

이날 신년모임은 서로 한자리에 모여 뜻을 같이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진보와 보수진영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선명성과 선동성을 앞세운 비타협적인 극단론이 다시 제기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보수·진보단체 모두 지난 시절 산업화와 민주화 운동을 통해 다같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의 공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장야한 유행경>에서 "화합의 시작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서로 공격하며, 자주 모여 강론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나를 내세울 때 화합은 유지될 수 없다. 서로를 공격하며 의견을 모을 때 공동체의 덕목인 화합이 이뤄진다. 결국 화합이 되어야 상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김원우(후재부 기자)

## 새해

이것만은...

### '환경실천 111운동' 전개하자



"우리는 모두 예약자"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설 없이 그 기차는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기차는 어느 열차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 승차 순번은 있지만 도착 순번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탔다고 해서 꼭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탔다고 해서 나중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자신이 탄 기차가 죽음이거나 종착역에 도착할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착역에 도착하자마자 저승사자에 의해 끌려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으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예약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종착역에 도착하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승사자에게 불러들여 끌려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도, 재산도, 명예도, 처자식도 아닌 그저 조그만 보따리 하나 일 것이다. 자신이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담겨 있는 장부책이 들어있는 '업 보따리'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일이란 그 업 보따리 속에 있는 '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따라 값을 치르는 일 밖에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행한 행위에 대한 과보는 부처님 자신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惡因惡果 善因善果'의 '自作自受 自業自得'의 이치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철칙인 것이다.

2007년이 밝았다. 불자들도 수많은 자기 계획들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정진하고 있겠지만, 새해를 맞아 특별한 한 두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

다. 무엇보다, 자신의 '장부'를 자주 들여다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자기 스스로 기록한 장부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장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저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세우며 앞만 보고 달려온 때문일 터이다.

올 해는 그저 관성적으로 밟아대던 과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끔씩 주위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환경실천 111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을 잘 보전하고, 후대에게 청정국토를 물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불자 1인 1년 1가지 환경

### 올 연말 모든 이의 살림살이 장부 '혹자' 기록 발원

실천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장보러 가기 전에 메모하기, 외식할 때 음식을 먹을 만큼만 적당히 주문하기, 친환경수세미 사용하기, 불전에 친환경 공양미 율리기 등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 한 가지씩 정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불자들이 모두 부처님 전에 서원하고, '환경실천 111운동'을 펼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리라 생각한다.

모든 불자들이 자신의 살림살이 장부를 자주 들여다보는 가운데, '환경실천 111운동'을 펼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자신의 살림살이 장부에 2007년은 '혹자'라고 자랑스럽게 기록할 수 있기를 발원한다.

정우식(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현재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속

글쓴이 : 해천법사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가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여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인생살이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원의 및 책자 신회**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운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1-8413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 ◇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 ◇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 수 있음.
- ◇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I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총무원 055)943-6570 / 중부총무원 043)648-8942 / 제주총무원 064)724-0318~9